

다산포럼

‘학벌 없는 사회’의 해산을 보며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문학평론가

대학 진학자가 소수에 머물던 시대에는 졸업장 자체가 의미 있었다. 하지만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90년대 이후에는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경쟁이 극심해졌다. 학벌이 인생의 전부일 수 없고 심지어 출세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권력에 결탁되어 정도 이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것은 공경하지 않고 그런 학벌중심 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적폐임이 분명하다.

박에 없다. 그런 가운데 학벌사회 타파를 기치로 활동해 온 한 시민단체가 최근 공식적인 해체 선언을 하고 문을 닫았다. ‘학벌 없는 사회’는 해산 선언문에서 우리가 “여전히 학벌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학벌이 “더 이상 권력 획득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학벌보다 자본의 독점이 더 지배적일뿐더러 심지어 학벌조차 휩쓸어 버릴 정도로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학벌과 권력의 연결이 느슨해진 결과 학벌을 가졌더라도 삶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으로 자본주의 체제 극복 운동으로 이어질 때 내실을 얻게 된다. 자본 지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활동을 접는다는 입장은 이 같은 운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방증이 된다. 자본이 학벌을 압도하게 된 현실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무의미하게 된 시대라는 일반의 인식과도 상응한다. 그러나 학벌이 그만큼 의미가 떨어진 한편 역으로 더욱 자본력의 뒷받침을 받고 또 그것을 재생산하는 도구가 되었으며 학벌 쟁취를 위한 경쟁은 더욱 격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런 곳만이 아니다. 지식 생산의 장이고 시민 교육의 터전이며, 한 사회의 문화의 담지자이자 국가의 이데올로기 기구이기도 하다. 세칭 일류대는 학벌주의 폐해의 정점에서 있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한 학문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거기서 발원한 동류의식은 파벌만이 아니라 학풍이나 학파의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된다. 단순히 일류대를 없애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교단에서

독창이나 합창이나



김진구 우산중학교 교장

모두들 학창 시절에 체육대회나 학교축제의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역동적인 체육대회도, 잔치마당 축제도 우울한 기억을 떠올린 분들도 많을 것이다. 어떤 역할이 없었으니까. 배구 코트에서도, 축구장에서도. 마지막 계주 달리기에도 뽀하지 못하고 만날 따라다니면서 ‘응원 절수가 많다’고 외쳐대는 반장의 강요로 하루 내 박수만 쳤던 피곤한 체육대회.

만 연습할 때나 공연할 때나 어디에도 끼지 못했던 쓸쓸한 기억. 그래서 나는 바꾸고 싶었다. 언제까지 운동장 흰색 라인 밖에서 박수만 치고, 평생 객석에 앉아 친구들이 들려주는 노래나 악기소리를 듣기만 할 것인가. 선배들이 비틀대는 무대 위의 빠른 춤사위에 환호성을 보내고 현란하게 돌아가는 사이크 조영 속에 홀로 의자 깊이에 묻혀 있을 것인가.

독창은 자신의 소리를 개성 있게 표현하는 고독한 작업이지만, 합창은 개개인 소리는 절제하고 남의 목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인간적 교감으로 한소리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연습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 쓰는 불협화음이 되는 것이다.

고, 조정하기도 한다. 이미 합창의 음악적인 성과 전에 더불어 생활하는 교육적 성과를 구조적으로 거두게 된다. 반별로 특색있는 모듬이 잘 나타나면서 ‘따들리거나 소외되는 학생 없이 그야말로 학급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기고

누가 장애인인가?



양성관 동강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지난달 20일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명칭을 바꿔서 정부가 주관해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올해도 장애인의 날이 들어있는 4월 20일 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연주하면서는 우리가 준비한 간단한 간식을 나누어 드리는 경우가 많다. 간식을 나누면서 서로 악수를 하고 한 달 동안의 안부를 묻곤 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필자의 지인과 자매간인데, 매달 만날 때마다 나에게 본인 언니의 안부를 묻곤 한다. 또 어떤 이는 본인만 받은 간식을 본인만 드시지 않고 내 손에 넘겨주며 먹기를 권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큰 소리로 나와 나의 기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보내고 나면 내가 지금 방문한 곳이 ‘정신지체 요양원’이란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고 지극히 정신이 정상적인 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정이 넘친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사랑을 나눔 줄 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이곳을 왔다가는 그 날 하루는 내가 스스로 기분이 좋아져서 하루 내내 흥얼거리며 이곳에서 받은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왜 이처럼 정신이 맑고 깨끗한 분들이 이곳에 계시길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모를 살해하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1년여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들썩하게 했던 최악의 인권유린 범죄인 엄전노예 장애인 사건의 가해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등을 보면 누가 정신장애자이고 누가 정신장애자가 아닌지를 묻고 싶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개최하기까지 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인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히며 감금당도 고행당하는 사건이 일 년에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수백 건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인지 구분이 안가는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 대해 정부에서 재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장애 종류별로 다양화된 재활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이용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재활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 국가들에 비해 장애등급을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장애등급을 받아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이 재활훈련을 받기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 충분한 재활을 하여 정상인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재활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많이 만들어, 장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재활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장애인을 위한 최상의 재활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장애인 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날이 언제 올지 있을까?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확산되는 옥시 불매 운동... 모든 의혹 밝혀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피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모든 지점의 행사 상품 진열대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시켰다.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그리고 CU·세븐일레븐·GS25 등 편의점 3사 또한 옥시 전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도 불붙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및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5·18민주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촉구하며 불매 운동 동참을 호소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표백제 옥시크린과 파우더크린, 섬유유연제 웨리, 물먹는 하마, 손세정제 데틀, 비트 제모 등 옥시 제품 125종을 SNS로 알리고 피켓·포스터 등을 무료로 배포하며 불매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약사들도 개비스콘 등 옥시의 일반의약품을 팔지 않겠다고 나섰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3당이 청문회 개최 입장을 밝히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20대 국회의 최우선 논 의 과제로 정한 것이다.

광주 국회의원들 지역 현안 해결로 보답하라

오늘 오후 윤장현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및 5개 자치 구청장과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광주 시청에서 만난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선인들과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현안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4·13총선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기회다. 간담회는 당연히 지역 최우선 과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며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선거가 끝나면 오래 이런 장면이 연출됐지만 사진이나 찌고 헤어지는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 약속과 각오를 담은 ‘2016 광주 희망 실천 합의문’도 발표한다고 한다.

국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내 면세점 설치, 광주호 주변 생태터온 조성 등도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 89건을 포함해 모두 261건, 2조 4440억 원 규모의 내년 국비 사업 지원도 건의키로 했다. 당면 현안 해법 찾거나 정부 예산 확보는 국회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으로 서로 고민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광주에서 8개 의석을 석권한 국민의당 소속 당선인들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거론되는 사업 대부분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 약속과 각오를 담은 ‘2016 광주 희망 실천 합의문’도 발표한다고 한다.

無等鼓

공기업에 다니는 A씨는 주말에 낚시를 하기 위해 직장 동료와 함께 영산강을 찾는다. 낚기랍혁신도시로 이주한 직장 때문에 홀로 내려와 새롭게 마련한 여가 생활이다. 물고기를 낚진 하지만 손맛만 즐길 뿐 다시 놓아준다. 최근 명예퇴직을 한 주부 B씨는 건강을 위해 국궁을 새롭게 시작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윗터를 찾아 활시위를 당긴다. 145m 거리의 과녁을 맞히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정신을 집중해 한 발, 한 발 활을 쏘며 스트레스를 날린다. 정신과 의사인 C씨

맞는 채소를 심고, 잡초를 뽑으며 구슬땀을 흘린다. 가을 때 내리는 빗방울이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다. 어렵사리 수확한 농작물은 친구들과 나눠 먹는다. 어느새 지천명(知天命)을 훌쩍 넘긴 친구들이나 비슷한 나이 대의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라는 카톡 프로필 문구도 눈에 띈다. 치열한 경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이가 들며 찾아드는 ‘지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취미로 별을 본다. 자연 중년에 접어들며 어릴 적 선망했거나, 하고 싶었던 일들이 취미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문학·역사·철학 인문학 공부에 새삼 빠져드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중년의 취미 생활은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다. 직장을 벗어나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 활력을 얻는 것이다. 승진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닌 중년의 취미 활동은 인생에 활기를 불어넣는 산소이자 자양분(滋養分)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중년의 취미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민내 (광주 시민내) and The Kwangju Alb.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nd advertising.